

잡지 『희망』이 상상한 전후 재건 도시

한영현*

1. 들어가며: 전후의 현실과 공간의 문화 정치
2. 우울한 암흑 도시의 풍경, 서울
3. 감정의 대중 정치와 상상되는 재건 도시
4. '모던 도시', 전후 '희망' 담론의 공간적 선회
5. 나가며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잡지 『희망』에 게재된 '전후 도시' 관련 기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공간'에 기반한 대중 문화 정치에 대해 탐구하고자 했다. 잡지에 게재된 다양한 전후 도시 내부의 암흑 공간과 관련된 기사들은 사실 '희망' 담론의 구축을 위해 소환된 것들이었다.

잡지 『희망』은 전후 서울의 특정한 공간들을 '암흑'과 '어둠'의 장소로 규정하고, 이 장소들에 온갖 전쟁의 부산물과 전근대성 등을 연결시킴으로써 재건을 위해 삭제해야 할 타자적 존재들을 조합시키는 일련의 언술들을 구사했다. 또한 도시 내부에 존재하는 암흑의 공간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 공간이 내포하는 어둠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했다. 전후의 온갖 부조리와 타락 속에서 대중들이 경험한 사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부정적 감정들을 도시 내부에 존재하는 이 공간에 투영함으로써, 도시의 '암흑상'은 대중들로 하여금 외면하거나 척결해야 하는 공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대중의 감정 정치를 작동하는 데 있어, 잡지에

*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게재된 도시 내부 암흑 공간에 대한 ‘치안 담론’은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이를 통해 치안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희망’ 담론의 구축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었다. 한편으로, 잡지 『희망』에서는 전후 재건 도시에 대한 상상력 속에서 ‘모던 도시’에 대한 지속적인 환기를 시도했다. 이러한 언술들은 ‘희망’ 담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전후 대중들의 비참한 현실 인식을 심리적으로 완화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 상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잡지 『희망』은 1950년대 매체 지형의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희망’ 담론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기사들을 게재함으로써, 잡지 고유의 특성을 지속해 나가고자 노력했다. 전후 재건 도시의 상상력을 통해 전쟁의 상흔을 직시하고 대중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실질적 현장, 즉 공간을 통해 희망의 담론을 구축하고자 했던 잡지의 지속적인 노력은 대중 잡지로서의 『희망』이 보여 준 특징적인 역할이자 의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잡지 『희망』, 전후 도시, 암흑상, 공간, 치안 담론, 희망 담론, 모던 도시, 대중 문화 정치, 사회적 타자, 전근대성, 전후 부조리)

1. 들어가며: 전후의 현실과 공간의 문화 정치

1958년 7월 18일자 『주간 희망』의 특집, 『민정 10년의 소사(小史)』 [사회] 부문에서는 지난 10년 간의 사회상을 ‘혼란과 무질서의 연속선’으로 상정한다. “불안정한 경제 상태와 궁핍의 극(極)을 달리는 농민생활, 거기에다 법질서의 혼란으로 야기되는 사회악으로 부단한 암흑상과 무질서의 연속선을 그었다고나 할 것이다.”¹⁾는 입장은 잡지 『희망』이 인

1) 『주간 희망』 제134호, 1958.7.18, 14쪽.

식한 1950년대의 시대상을 짐작케 한다. 언뜻 보기에 “사회악”과 “암흑상”, “혼란과 무질서”에 기반한 절망적 세계 인식은 잡지가 내세운 “희망”적 담론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그러나 현실적 실현 가능성보다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상상력에 기반해 있는 ‘희망’의 개념적 성격을 음미해 본다면, 아니러니하게도 1950년대 시대상에 대한 절망적 세계 인식 속에서 ‘희망’의 상상력을 작동시킬 동력을 발견할 수도 있다.²⁾ 이러한 ‘희망’의 물적 토대로서 제시된 1950년대 시대상에 대한 부정적 세계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암흑의 사회상을 ‘공간’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고의 목적이다.

이는 전후 ‘공간’의 문화 정치적 측면에 대한 관심과 연관된다. 앙리 르페브르에 따르면, ‘공간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의미 작용을 하며, 이는 곧 공간이 ‘권력’과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권력의 매커니즘에 따라, 특정한 공간은 인간의 역할과 태도를 규정하는데,³⁾ 이러한 주장은 푸코의 ‘권력’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푸코는 규율 매커니즘이 허용과 금지를 코드화하는 기제이며 금지와 명령의 도구를 활용해 현실에 대응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규율 매

2) 이와 관련하여 1950년대 대중잡지에 반영되어 있던 ‘명랑’ 코드와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최애순은 대중잡지 『명랑』을 분석하면서, “50년대는 우울을 걷어내고 명랑을 공유하고자 의도적으로 노력했으며, 이는 대중의 욕망이기도 했지만 국가가 국민계몽 정책으로 내건 표어이기도 했다”고 논의한다. “명랑소설이 창작되고 명랑소설가군이 형성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랑은 장르로서보다 50년대 보편적인 국민통합정서로 기능하는 수식어로서의 역할이 강했다.”(최애순, 『50년대 『아리랑』 잡지의 ‘명랑’과 ‘탐정’ 코드, 『현대소설연구』 제4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381쪽) 이에 따르면 50년대에 대중들에게 널리 유포된 ‘명랑’은 전쟁의 폐허를 잇기 위한 마취제로서 호출된 담론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반면, 잡지 『희망』에 다수 게재되어 있는 사회적 암흑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기사들은 그러한 현실적 절망을 명시함과 동시에 그것을 극복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국민계몽과 ‘희망’ 메시지 유포를 위해 노력했다는 차별점을 보인다고 판단된다.

3)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양영란 옮김, 에코리브르, 2014, 227-228쪽 참조.

커니즘에 의해서 현실의 조절 장치들이 구성되는데, 이른바 안전 장치는 현실에서 작동하는 중요한 권력의 효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푸코는 도시 문제가 다양한 안전 매커니즘 사례의 핵심이라고 말한다.⁴⁾

두 입장을 종합하면, '도시'라는 특정한 공간은 권력의 작동에 따른 규율 매커니즘과 안전 장치를 통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의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 구조와 행위 주체 간의 긴장과 갈등, 포섭과 배제 등이 일어나는 공간"을 문화 정치의 지형으로 간주한다면,⁵⁾ '도시' 공간은 권력과 규율, 안전 장치에 의해 국가와 사회 대 행위 주체들의 문화적 갈등과 포섭, 배제 등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히는 대중 문화적 장소로서 그 구성의 과정과 내용 등이 매우 중요한 분석의 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특정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 국가와 개인의 존립이 위태로운 국면에 처하게 될 때, 사회적 공간의 구성 과정은 그만큼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1950년대 전후 현실 또한 이와 같은 국면에 상응한다. 6.25전쟁으로 인해 남한 전쟁 피해자 총 수가 약 130만명에 이르고, 5백만이 넘는 남한 인구가 집을 잃고 방황했을 뿐만 아니라, 피난생활, 가족 이산, 전쟁고아, 경제 파탄, 사회 불안 등의 전쟁 참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전쟁 미망인 수는 20만명에 이르렀고, 고아의 수도 10만명으로 추산되는 등 한국 전쟁은 전후 국가와 개인의 사회적 존립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파괴적인 사건이었다.⁶⁾ 따라서 전후의 현실은 파괴된 암흑의 사회, 더 나아가 초도화된 '공간'을 재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국가와 개인의 생물학적 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적합한

4)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 심세광 외 옮김, 난장, 2011, 55-89쪽 참조.

5) 이성철, 『안토니오와 그람시와 문화정치의 지형학』, 호밀밭, 2009, 47-50쪽 참조.

6) 정성호, 『한국 전쟁과 인구사회학적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12-14쪽.

공간의 내용을 새롭게 조직하고 정비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잡지 『희망』이 내건 슬로건이었던 ‘희망’ 담론의 구축과 관련하여 ‘암흑상’으로서의 공간은 전후의 비참한 현실을 이미지화하여 절망적 상황의 비극을 극복해야 할 당위성을 독자들에게 설득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되었다. 전쟁의 상흔을 표출하는 특정한 가시적 공간과 그 공간에 드리운 어둠의 이미지를 적극 차용함으로써, 잡지는 ‘절망적 공간’으로부터 희망의 윤리적 담론을 구축해야 할 정당성과 필요성을 손쉽게 동의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1950년대 전후의 ‘암흑상’은 비단 잡지 『희망』에서만 다루는 소재는 아니었다.⁷⁾ 다만, 잡지 『희망』의 경우 전후의 ‘암흑상’을 ‘희망’ 담론의 구축을 위한 단골 소재로 적극 활용하여 전후 절망에 빠진 대중의 감정을 구제하려는 시도를 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잡지 『희망』에서 제기된 사회적 공간의 재구축은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가. 기사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추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대도시 서울의 특정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조명하면서, 이 곳을 ‘범죄자’의 소굴로 혹은 ‘암흑가’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존재들의 집단 수용 공간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7) 이와 관련하여 공임순의 글을 참조해 볼 수 있다. 필자에 따르면, 잡지 『희망』이 표방했던 ‘오락지’와 ‘대중 교양지’의 편집 노선과 체제 변화 양상은 1950년대 매체 지형의 한 단면을 형성하고 있었다. 당대 잡지들은 건전함과 비속함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낮익은 새로움’을 마케팅의 전략으로 구사하고 있었고, 잡지 『희망』 또한 이러한 매체 지형의 큰 틀 안에서 편집 노선과 체제 변화를 꾀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전후 ‘암흑상’에 대한 잡지의 편집 노선 또한 여타 잡지들의 마케팅 전략과의 연장선상에서 ‘낮익은 새로움’의 한 코너로서 대중들에게 상품으로 소비되었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공임순, 『1950년대 전후 레짐(postwar regime)과 잡지 『희망』의 위상』, 『1950년대와 잡지 『희망』』, 대중서사학회 2017년 봄 학술대회 자료집, 2017.5.27, 1-19쪽 참조) 본 고에서는 이러한 공임순의 논의에 동의하되, 당대 신문들의 전후 재건 논의들을 참조하면서 잡지 『희망』이 당대의 사회적 재건 담론과 어떠한 상관관계 속에서 ‘희망’ 담론의 구축을 위해 사회의 ‘암흑상’을 공간적으로 부각시켜 나갔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는 점이다. 이는 매우 정치적인 입장이다. 주체화 과정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다른 자기와 관계를 맺어 하나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⁸⁾ 전후 근대 도시의 균질적인 통합 공간의 창출 의도에 따라, 이러한 도시 내의 암흑가를 창출해내는 정치적 논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리타 류이치에 따르면, “시스템 존재의 ‘가시화’는 슬럼의 ‘발견=창출’이기도 했다.” 도시의 하층사회는 네거티브 요인의 전부를 구현하는 공간으로 창출되고, 이러한 논리에 따라 ‘빈민’ 또한 생산되는 것이다.⁹⁾ 따라서, 서울 공간의 구획화는 전후의 현실 속에서 『희망』이 구축하고자 했던 이데올로기와 그들이 상상한 ‘희망’ 담론과의 연관성 및 ‘공간’의 문화 정치 양상을 분석하는 데 참조점을 제공한다.¹⁰⁾ 둘째, 무질서와 암흑의 장소로 재현되는 서울의 공간들은 ‘치안’ 담론과 긴밀한 상관 관계에 놓여 있다. 이는 비단 경찰과 법 권력의 물리적 관리와 감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치안의 본질은 감각적인 것에 대한 어떤 나눔이다.”라는 랑시에르의 주장에 기대어 본다면,¹¹⁾ 잡지에 계

8)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옮김, 길, 2016, 118쪽.

9) 나리타 류이치, 『근대 도시 공간의 문화 경험』, 서민교 옮김, 뿌리와 이파리, 2011, 32쪽.

10) 이와 관련하여 이봉범은 1950년대 풍속이 네거티브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도덕 표준이 규범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전후 현실 속에서 국가 권력은 도덕 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창안하게 된다. 이때 도덕의 본질, 즉 도덕적인 것은 관념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인 반면 부도덕적인 것은 현실 사회에서 스스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풍속 담론 대부분이 그 부도덕적인 현상에 대한 시비를 중심으로 한 풍기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이봉범, 『한국전쟁 후 풍속과 자유민주주의의 동태』, 『한국어문학연구』 제56집, 동아어문학회, 2011 참조). 이봉범의 이러한 시각은 잡지 『희망』에 게재된 사회 암흑상을 다룬 다수의 기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굳이 ‘도덕’이라는 규범의 여부로 당대의 문화를 분석해야 하느냐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최소한 1950년대 풍속 담론의 네거티브 전략은 어떤 공통적인 것의 확립과 ‘주체화’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1)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옮김, 길, 2016, 223-224쪽.

여기에서 랑시에르는 “감각적인 것의 나눔은 나누어진 공통과 배타적인 몫들의 배경

재된 암흑의 공간에 대한 필자의 논평이나 그 공간에 거주하는 배제된 타자들의 고백이나 그들에 대한 증언이 어떤 ‘감정적 나눔’ 속에서 대중 정치적 목소리로 소환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서울역 주변 일대를 잠식하고 있는 거대한 사창굴이나 사치와 향락의 소굴로 명명되는 댄스홀, 요정 등을 조명하는 기사들은 그 공간에 거주하는 인물들의 고백이나 관찰자의 증언을 게재한다. 그런데 “고백은 외부적 심판이나 행동의 시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하는 내부적 심판이기 때문에 행동뿐만 아니라 의도와 생각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¹²⁾ 『희망』은 암흑의 공간에 유입된 타자들의 고백과 타자들에 대한 증언을 적극적으로 소환하여, ‘의도’와 ‘생각’을 대중들과 감정적으로 공유하고, 타자화된 공간에 스며든 전후 ‘범죄’와 ‘가난’, ‘향락’, ‘악’의 부정적 연결고리로부터 일반 대중들이 자신들을 감정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특정한 공통의 감각을 형성한다. 셋째, 『희망』에 게재된 ‘암흑’의 공간 한편에는 전후의 참상을 극복한 ‘선진’의 ‘모던’ 도시에 대한 상상이 자리잡고 있다. ‘20년 후의 서울’에 대한 상상이나 외국인의 시선에 포착된 ‘내가 본 서울’ 혹은 ‘고쳐야 하겠습니다’의 제하에 명시되는 자잘한 서울의 추한 시설물 정비의 필요성, ‘반도 호텔’의 선진성에 대한 탐방 기사 등은 ‘선진’과 ‘모던’의 상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요컨대, 『희망』은 암흑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소환함과 동시에 선진의 도시에 대한 상상력을 기능할 수 있는 기사들을 배치하여 대중적으로 전유할 만한 ‘희망’의 공간적 내용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희망』에 게재된 ‘공간’과 관련된 다수의 기사들은 잡지의 이

사이의 관계가 감각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방식”이라고 논한다. “감각적 확실성에 따라 몃들의 부분들의 배정을 예견하는 이러한 배정은 그 자체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들리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의 나눔을 전제한다.”

12) 미셸 푸코, 『비정상인들』, 박정자 옮김, 동문선, 225쪽.

데올로기적 방향과 표제로 내건 ‘희망’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늠하는 유효한 지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잡지 『희망』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¹³⁾ 특히, ‘공간’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 없다. 사실, 잡지의 발행권수와 잡지의 실체를 총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저간의 사정에서 비롯하여 다양한 한계가 이 잡지에 대한 연구 작업에 장애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1951년 7월 창간되어 1962년 3월 통권 88호로 중단되었으며 발행 기간 내내 종합 대중잡지를 표방”¹⁴⁾한 이 잡지는 1950년대 대중 문화 정치의 일단을 살펴보는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 없다. 따라서 자료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당대 대중 문화 지형과 1950년대 시대상의 관계를 다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한 분석의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전후 현실에 대한 대중 인식과 대중 문화 정치를 ‘공간’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잡지 『희망』이 구축하고자 했던 이데올로기적 지향점에 대해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잡지에 게재되어 있는 ‘공간’ 관련 기사들의 종류와 특징을 일별하여 전후 대도시 ‘서울’ 공간의 구획과 의도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공간에 대한 대중의

13) 잡지 『희망』의 연구는 대체적으로 ‘서지 연구’와 문예면에 실린 소설 연구, 기사들에 드러난 담론 양상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한편, ‘인권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예외적으로 확인된다. 다음의 논문들이 이에 해당한다. 엄동섭, 『1950년대 희망사 간행 대중잡지의 서지 연구』, 『근대서지』 13호, 근대서지학회, 2016, 158-189쪽; 전지니, 『『희망』 소재 문예면에 나타난 전쟁기의 윤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7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103-130쪽; 전지니, 『1950년대 초반 종합지 『희망』의 반공청년 표상』, 『어문논총』 6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369-400쪽; 이은선, 『전쟁기 『희망』과 조흔파의 ‘명랑소설’ 연구』, 『어문논총』 66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295-321쪽; 조운아, 『인권교육의 텍스트 확장을 위한 연구-1950년대 대중잡지 『희망』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47권, 2015, 115-136쪽.

14) 엄동섭, 『1950년대 희망사 간행 대중잡지의 서지 연구』, 『근대서지』 13호, 근대서지학회, 2016, 161쪽.

감정 정치의 논리를 ‘치안 담론’과의 연관성 하에서 분석함으로써 전후 현실을 인식하는 『희망』의 일정한 시선을 포착해 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암흑의 공간을 생산하는 한편으로 ‘모던’과 ‘선진’에 대한 잡지의 도시적 상상력을 살펴봄으로써, ‘공간’의 문화 정치를 통해 구축하고자 했던 ‘희망’ 담론의 내용을 가늠해 볼 예정이다.

2. 우울한 암흑 도시의 풍경, 서울

『월간 희망』과 『주간 희망』에 게재된 ‘도시’ 관련 기사들을 일별해 보면 일정한 패턴의 반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서울’ 공간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법론과 연결된다. 뚜렷하게 확인되는 특징은 환도 도시 ‘서울’에서 주목해야 할 특정한 공간이 지속적으로 기사화된다는 점이다. 이 특정 공간은 ‘서울역’, ‘동대문’, ‘소공동’, ‘명동’, ‘청계천’, ‘종삼’, ‘남산 일대’, ‘을지로’ 등의 지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댄스홀’, ‘카바레’, ‘사창굴’, ‘직업 소개소’ 등의 업소들을 망라한다. 이러한 서울의 특정한 공간들은 주로 ‘암흑가’로 명명되는 동시에 우울하고 혼란스러운 서울의 현재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요소들로 치부되는 특징을 보인다.

『희망』에 게재된 서울 도시 공간 관련 기사들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⁵⁾

15) 도시 관련 기사들을 선별한 기준은 다음의 몇 가지 원칙에 따랐다. 첫째, ‘표제’에서 ‘서울’이라는 키워드나 ‘도시’ 관련 키워드를 제기한 경우 둘째, 서울의 특정 ‘업소’나 ‘거리’, ‘풍물’을 소개한 경우 셋째, 일반적인 르포나 논평 기사 안에서 ‘서울’의 특정한 공간을 다루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목록의 작성은 필자가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잡지에 한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 잡지 구분 | 기사 제목 |
|------------------------|---|
| 『월간 희망』(1952년 10월) | [희망신민댄스배들을 일제히 단속 |
| 『월간 희망』(1952년 12월) | [희망신민늘어만 가는 흥등계 |
| 『월간 희망』(1953년 7월) | [루폴타-취사회 압후면 중황가-임 운/민규호 |
| 『월간 희망』(1953년 9월) | [희망 뗏세-지부산을 떠나는 서울 시민에게-손영수 |
| 『월간 희망』(1953년 9월) | 환도를 전후한 서울과 부산-박운대 |
| 『월간 희망』(1954년 6월) | 서울 다방 성쇠기(盛衰記) |
| 『월간 희망』(1954년 6월) | 소매치기는 어디에나 우글거린다! 잃은 후에 소리치지 말고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자 |
| 『월간 희망』(1954년 6월) | [생활백세양공주는 이렇게 외친다 |
| 『월간 희망』(1954년 6월) | 기업화한 거리의 남녀 교제와 알선 업체의 광무하는 전모 |
| 『월간 희망』(1954년 6월) | 유한 마담들의 제2직업 전선 해부-정광모 |
| 『월간 희망』(1954년 7월) | 서울 시내 댄스홀 탐방기 |
| 『월간 희망』(1954년 7월) | [**탐사요정에 있는 뽀이가 본 세상 |
| 『월간 희망』(1954년 11월) | 돌아와 본 장안 백면상-장의숙 |
| 『월간 희망』(1954년 11월) | [특수 탐방서울 소년원을 찾아 |
| 『월간 희망』(1954년 12월) | 서울이 좋다 하기에-이건혁 |
| 『월간 희망』(1954년 12월) | 거리의 사기사(詐欺師) 순례기-장주내 |
| 『월간 희망』(1954년 12월) | 을지로 입구 야간도(夜間圖)-이인석 |
| 『월간 희망』(1955년 3월) | [특별해설전후파란 무엇인가?-김용장 |
| 『월간 희망』(1955년 4월) | [한국인상기]눈부신 재건-루돌프 쏫테 |
| 『월간 희망』(1955년 4월) | 서종삼보다 공창을 |
| 『월간 희망』(1955년 4월) | 뒷골목 댄스홀의 생리-S기자 |
| 『월간 희망』(1955년 8월) | 시원하고 아늑한 것 없는 요지경-최신 국제도시의 축도 반도 호텔 |
| 『주간 희망』(1955년 12월 26일) | [조류] 사창은 어디로 갈 것인가 |
| 『주간 희망』(1956년 2월 20일) | 현대의 허점 파고드는 병패-미신의 거리 또 한바탕 번창 |
| 『주간 희망』(1956년 6월 22일) | [잃어 버린 군상①] 지옥은 지상에서-다리 밑의 주민들 |
| 『주간 희망』(1956년 6월 22일) | [잃어 버린 군상②] 먹고 살기에 마른 눈물-그 이름 전쟁 미망인 |
| 『주간 희망』(1956년 6월 22일) | [주간 시평]도로공사의 맹점-서울 특별시 시정의 예를 보고 |
| 『주간 희망』(1956년 7월 13일) | [잃어 버린 군상④] 꿈 없는 비극의 씨들-어린 혼혈은 꼬부라져만 가고(*잡기 발행 날짜로 보건대, ③의 오기로 ④를 표기한 것으로 보임) |
| 『주간 희망』(1956년 7월 20일) | 새서울의 새집 천여호-후생 주택은 어떻게 짓고 있나 |
| 『주간 희망』(1956년 7월 20일) | [잃어 버린 군상⑤] 정말에 우는 사창-밤마다 부르는 인생 애가 |
| 『주간 희망』(1956년 7월 20일) | [고쳐야 하겠습니다=당국에의 요망] 전주와 가로수 |
| 『주간 희망』(1956년 7월 27일) | [잃어 버린 군상⑥] 서울의 지붕밑=구슬픈 남산길의 생태 |
| 『주간 희망』(1956년 7월 27일) | [고쳐야 하겠습니다=당국에의 요망] 명동의 교통 표식 |

| | |
|------------------------|---|
| 『주간 희망』(1956년 8월 3일) | [잃어 버린 군상⑦] 가공할 망국병=신음하는 아편중독자들 |
| 『주간 희망』(1956년 8월 3일) | [고쳐야 하겠습니다=당국에의 요망] 노출된 수도권 |
| 『주간 희망』(1956년 8월 10일) | [고쳐야 하겠습니다=당국에의 요망] 인도와 간판 |
| 『주간 희망』(1956년 8월 24일) | [잃어 버린 군상⑧] 밝을 줄 모르는 서울의 25시-탐동 공원은 실업자의 휴식처? |
| 『주간 희망』(1956년 8월 24일) | [내가 본 한국①] 서울의 첫인상-조오지 M 테이리 |
| 『주간 희망』(1956년 8월 24일) | [고쳐야 하겠습니다=당국에의 요망] 지하도와 낙수 |
| 『주간 희망』(1956년 8월 31일) | [특집]카바레·빠·다방의 생태-관능파의 난무장 카바레/육체의 문 ‘빠’/다방 속은 요지경 속 |
| 『주간 희망』(1956년 8월 31일) | [내가 본 한국②] 외국 정취 풍기는 명동-조오지 M 테이리 |
| 『주간 희망』(1956년 9월 7일) | [내가 본 한국③] 포엠 스탠드 빠-조오지 M 테이리 |
| 『주간 희망』(1956년 9월 7일) | [고쳐야 하겠습니다=당국에의 요망] 격리되어야 할 주유소 |
| 『주간 희망』(1956년 9월 7일) | [서울 풍물지①] 세종로 |
| 『주간 희망』(1956년 9월 14일) | [고쳐야 하겠습니다=당국에의 요망] 공동 변소가 된 전차 신호대 |
| 『주간 희망』(1956년 9월 14일) | [내가 본 한국③] 서울→부산 짚차 여행의 인상-조오지 M 테이리 |
| 『주간 희망』(1956년 9월 14일) | [서울 풍물지②] 소공동 일대 |
| 『주간 희망』(1956년 9월 21일) | [서울 풍물지③] 동대문 주변 |
| 『주간 희망』(1956년 9월 21일) | [내가 본 한국④] 말 없는 완충지대-조오지 M 테이리 |
| 『주간 희망』(1956년 9월 21일) | [고쳐야 하겠습니다=당국에의 요망] 다리 위의 점포 |
| 『주간 희망』(1956년 9월 28일) | [내가 본 한국⑤] 3등차-조오지 M 테이리 |
| 『주간 희망』(1956년 9월 28일) | [고쳐야 하겠습니다=당국에의 요망] 큰 고개의 먼지 |
| 『주간 희망』(1956년 10월 5일) | [서울 풍물지⑤] 종로의 예수 |
| 『주간 희망』(1956년 10월 19일) | [고쳐야 하겠습니다=당국에의 요망] 방관되는 노변 쓰레기 |
| 『주간 희망』(1956년 10월 26일) | [고쳐야 하겠습니다=당국에의 요망] 인도에 돌기된 무쇠 말뚝 |
| 『주간 희망』(1957년 2월 15일) | [뉴스 스토리]2 인육시장에 팔려간 6백 처녀 |
| 『주간 희망』(1957년 3월 8일) | 마의 종착역-서울역 주변 |
| 『주간 희망』(1957년 3월 15일) | 삼위일본 사기꾼-홍등가로 가는 관문 |
| 『주간 희망』(1957년 4월 19일) | [독자투고]서울에의 항의-서울역, 백화점, 그리고 150만 서울 시민에게 항고한다-박일송 |
| 『주간 희망』(1957년 9월 6일) | 하숙이라는 이름의 사창지대 |
| 『주간 희망』(1957년 10월 4일) | 20년 후의 새서울=항구를 낀 대모던 도시 |
| 『주간 희망』(1957년 12월 6일) | 서울의 이방지대 차이나타운=여기는 서울의 台北 |
| 『주간 희망』(1958년 7월 4일) | 길 잃은 아름다운 악녀들=악의 화원은 과연 없어질 건가? |
| 『주간 희망』(1958년 7월 18일) | [사회]혼란과 무질서의 연속선 |

위에 정리한 표를 통해 『희망』에 실린 ‘서울’ 공간 관련 기사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기사의 표제에서 드러나는 ‘탐방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사창가나 ‘댄스홀’ 등의 ‘향락’과 ‘사치’의 공간으로서, 이곳들은 ‘악’의 장소로 상징된다. 가령, 1953년 7월 『월간 희망』의 기사, 『사회 암흑면 종횡기』에서 민규호는 ‘보이지 않는 죄과와 눈에 보이는 사회악’이라는 부제목 아래에서 “사회악으로서 양공주의 양태는 그 으뜸 가는 것”이라고 논하면서, “이들의 분포 상황은 부산·경도, 완월동, 대신동, 역전, 서면” 등지, “서울·명동, 남대문로 1가, 2가, 회현동, 충무로, 종로, 안국동, 관철동” 등지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 놀랍다고 한다.¹⁶⁾ 이는 1956년 8월 31일 『주간 희망』의 기사에서 “도시의 변화한 곳을 찾아 독버섯처럼 움트고 있는 뻐”가 “휴전 후 갑자기 늘어가기 시작했다”¹⁷⁾는 내용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된다. 향락과 사치의 장소를 주로 ‘독버섯’이나 ‘죄악’과 연관시키는 시각은 1958년 7월 18일자 『주간 희망』의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 사회악의 온상지대인 사창굴에 시퍼런 메스를 돌려댄 당국의 수술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며 서울 시내의 사창굴 분포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 기사에서 ‘중삼지대’, ‘양동지대’, ‘이태원 지대’ 등의 사창굴은 ‘사회악’의 공간으로 명명된다.¹⁸⁾ 그런데, ‘공간’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 ‘사회악’의 공간은 전후의 부산물로서 형성되기 시작한 장소들이었다. 실제로 전쟁으로 인해 ‘주택’과 ‘산업 시설’의 파괴로 서울은 폐허의 도시로 전락했다. 주요 유적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반면, 잡지에서 언급한 ‘명동’이나 ‘동대문’ 등의 주요 시가지지를 비롯하여 주택이나 산업시설 등

16) 민규호, 『사회 암흑면 종횡기』, 『월간 희망』, 1956.7.

17) 『특집카바레·뻐·다방의 생태』, 『주간 희망』, 1956.8.31.

18) 『길 잃은 아름다운 악녀들=악의 회원은 과연 없어질 건가?』, 『주간 희망』, 1958.7.4. 55쪽.

의 파괴는 엄청났다.¹⁹⁾

사실, 이러한 전후의 폐허로 인해 당시 사회에서는 재건과 복구에 대한 필요성이 대중들에게 공유되어 있었다. 사회악의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는 ‘사창’ 문제에만 국한시켜 보더라도 “금반 당국에서는 전례에 없는 계획 하에 사창굴을 단속하겠다고 공표하였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양풍미속을 쪼먹는 사회악의 근절대책임에 민주국가의 일원으로서 기 빠하여 마지 않는다.”²⁰⁾거나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매춘을 일삼는 자가 약 오천명에 달한다고”하여, “우선 그들의 무질서한 만연으로 일반주택가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정한 구역을 지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²¹⁾ 그러나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던 ‘사회악’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 양상은 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로 ‘단속’과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치안’ 담론이 주를 이루었으며, 특정한 ‘공간’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국가 재건과 발전에 저해가 되는 존재들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²²⁾

반면, 잡지 『희망』은 폐허가 된 도시의 공간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사회적으로 유통되었던 ‘사회악’에 대한 담론들을 공유하면서도 전후에 형성되기 시작한 특정한 공간의 어두운 양상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그것을 ‘암흑’으로 특화하고자 했다.

19) 이와 관련된 논의는 장세훈의 『한국전쟁과 남북한의 도시화』, 『사회와역사』 67권, 한국사회사학회, 2005, 207-260쪽을 참조할 것.

20) 지운희, 「윤락여성에 선도가 선결 국민반단위로 조직적인 단속에」, 『경향신문』, 1955.12.13.

21) 「사설사창단속문제」, 『동아일보』, 1958.6.19, 1쪽.

22) 관련 기사들을 몇 가지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무방비지대(5)사창」, 『동아일보』, 1955.11.29; 「사창들의 그 후 생태」, 『경향신문』, 1956.1.9; 「불량 청소년과 범죄」, 『경향신문』, 1958.11.22; 「불건전한 도시 생활환경」, 『동아일보』, 1958.6.26 등.

둘째, 이러한 ‘악’의 공간을 점유한 양공주를 비롯한 부랑이나 떠돌이 혹은 소매치기 등은 이 공간을 ‘무질서’와 ‘혼돈’의 장소로 상징화하는 존재들이다. 1954년 12월 『월간 희망』의 기사에서 필자 장주내는 “동란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은 실로 비참과 처절을 극한 파괴와 사회의 무질서였다고” 지적하면서, 서울 시내 “우편국 모퉁이에서 총무로 입구 미군 P. X앞을 지나 남대문시장 입구까지” 딸라 암매상들이 활약하고 있는 실태를 비판적으로 탐색한다. 뿐만 아니라 처녀 사기한들에 주목하면서 “이들 중요할 사기한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주로 무대는 서울역을 삼는다”고 하면서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들을 유혹하는 이들을 동란이 가져온 ‘사회의 무질서’와 ‘비참’, ‘처절’의 상징으로 의미화한다.²³⁾ 필자에 따르면, ‘서울역’이나 ‘남대문 일대’ 등은 ‘사회의 무질서’와 ‘혼돈’이 온갖 비참·처절과 뒤섞이는 악의 공간이 된다. 이는 ‘서울역’과 같은 특정 공간을 ‘소매치기’와 ‘뽀뽀보이(뚜쟁이)’의 사기에 걸리는 무서운 곳으로 기술하는 태도와도 연관된다.²⁴⁾

물론, ‘서울’이나 부산을 비롯한 일부 도심 지대에서 거리에 행인보다 거지떼나 부랑배가 더 많지 않을까 의심이 될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거리의 깡패, 어깨, 소매치기, 날치기, 펜프 등이 (온)갖 사회악과 범죄의 씨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는 당대 신문 사회면의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²⁵⁾ 전후 사회악의 대표적인 존재들에 잡지 『희망』 또한 공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위에서 예로

23) 장주내, 「거리의 사기사 순례기」, 『월간 희망』, 1954.12, 158-160쪽.

24) 「마의 종착역=서울역 주변」, 『주간 희망』, 1957.3.8, 16쪽. 이 기사는 시작하는 말머리에 다음과 같이 ‘서울역’을 ‘부랑아들로 가득찬 무질서하고 무서운 곳으로 기술한다. “시골 사람들 가운데서 서울역을 무서운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일수록, 대개는 소매치기의 면도칼 세레나 뽀뽀보이(뚜쟁이)의 사기에 걸린 쓰디쓴 경험을 갖고 있다.”

25) 「무방비지대(7)부랑배」, 『동아일보』, 1955.12.1, 3쪽.

든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심의 거리를 점령한 사회악에 대한 기사의 관점은 대체로 국가의 '단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으로 귀결되었다. 이와는 달리, 『희망』은 특정한 공간을 혼란과 무질서로 물들이는 사회악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환기하고 타자에 대한 감정적 분리를 요청하는 담론을 구성하는 차이를 보여 주었다.

특히, '서울역'은 『희망』에서 자주 거론되는 공간이었다. 1957년 3월 8일의 『주간 희망』에서처럼 '서울역'을 본격적으로 해부한 기사가 있는 한편, 1957년 9월 6일 『주간 희망』에서처럼 청계천 주변 '동대문'을 비롯한 '사창지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서울역' 지대를 언급하는 경우까지 '서울역'과 그 일대는 잡지의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환기되는 공간이다. 왜 하필 '서울역'일까. 그것은 "관문"이라는 수식어에서 짐작할 수 있다. 1957년 9월 6일 『주간 희망』에서는 부제로 '겉은 양동(陽洞) 혹은 음동(陰洞)'이라고 하며 "관문부터 어두운 서울"을 언급한다.²⁶⁾ 서울역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관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관문'은 일종의 경계 지대이자 '문턱'으로 상징되는데, 이를 테면 일종의 '외부'이자 '내부'의 공간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장소이다. 피난지 부산에서 환도 도시 '서울'로 올라오는 관문으로서 이곳은 '지방(시골)'과 '도시', '피난지'와 '환도 도시'의 경계적 장소로서 일종의 문지방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서울역은 상징적 차원에서 대도시 서울 공간의 출발점이자 전후 재건 도시의 상징적 '문'으로서 의미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역과 그 일대를 잠식하고 있는 사창지대와 수많은 소매치기, 펌푸 보이 등은 전후의 온갖 무질서와 혼돈, 범죄로 오염되어 전후 재건 도시의 상상력과 도시적 경계선의 확정을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서울역'은 도시의 내부 공간이자, '외부'이기도 하다. "외부는 규정된 공간 너머에 있는 어떤 공간

26) 『하숙이라는 이름의 사창지대』, 『주간 희망』, 1957.9.6, 19쪽.

이 아니라, 통로, 즉 규정된 공간으로 하여금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외부성이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공간의 얼굴, 그것의 형상²⁷⁾이라는 점에 착안하면, '서울역'은 전후 재건 도시 상상력의 출발점이자 전후의 혼란과 무질서를 표상하는 외부이자 전쟁의 '얼굴'로서 기능했던 것이다. 잡지 『희망』에 게재된 도시의 암흑가 탐방에 '서울역'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과 연관된다.

셋째, '기획 기사' 형태로 제시된 글들이 몇 가지 종류로 게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잃어버린 군상 시리즈를 살펴보자. 이 기사들은 서울의 특정한 공간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회적 타자들을 조명한다. 1956년 6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약 두 달간 게재된 이 시리즈는 총 7개의 단편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구린내와 곰팡내가 숨막히게 풍기는" '다리밑'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지게꾼 가족, "전승은 이루어지고 평화는 다시금 깃들어 오는데 홀로 노두(路頭)를 헤매어야 하는 전쟁 미망인",²⁸⁾ "부모 형제도 집도 없이 날이면 날마다 이 거리 저 거리를 헤매며 온갖 천대를 받고 사는 부랑아",²⁹⁾ "사창"과 "전재의 터전에 빈틈 없이 지어진 판자와 천막집 비좁은 골목길"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남산 일대의 군상들,³⁰⁾ "주사윗군, 점장이, 목적 없이 아우성치는 연설가, 녹썬 매소부, 떡장수, 물장수, 시골 손의 호기를 노리는 사진사"가 우글대는 파고다 공원³¹⁾ 등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사에서 조명하는 것은 서울의 '거리'와 '남산 일대', '파고다 공원' 등지를 무수히 채우고

27) 조르조 아감벤, 『도래하는 공동체』, 이경진 옮김, 꾸리에, 2014, 96쪽.

28) 『[잃어버린 군상②] 먹고 살기에 마른 눈물=그 이름 전쟁미망인』, 『주간 희망』, 1956. 6.29, 12쪽.

29) 『[잃어버린 군상④]백주의 암흑=꿈 없는 비극의 씨들』, 『주간 희망』, 1956.7.13, 15쪽.

30) 『[잃어버린 군상⑥]백주의 암흑 서울의 지붕밑=구슬픈 남산길의 생태』, 『주간 희망』, 1956.7.27, 40쪽.

31) 『[잃어버린 군상⑧]밤을 줄 모르는 서울의 25시』, 『주간 희망』, 1956.8.24, 21쪽.

있는 사회적 타자들이다. 제목은 “잃어 버린 군상”이지만, [백주의 암흑이라는 표제어에 비춰 보면, 사회적 타자들을 ‘암흑’의 존재들로, 이들이 점거한 공간을 ‘암흑’의 장소로 생산하는 전략을 암암리에 구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풍물지] 시리즈는 그러한 양상을 좀더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총 5개의 기사로 구성된 이 글에서는 서울 주요 공간의 역사적 의미와 유적 등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서술을 진행한다. 그러나 기사의 목적은 과거의 유서 깊은 이 공간들이 현재에는 타락과 어둠의 공간으로 변한 세태를 비판하는 데 있다. 소공동 일대를 가득 매운 “다방”과 “카바레”, 그리고 “갈보의 준동”,³²⁾ “미숙한 청춘과 웃음을 파는 밤의 여인들이 출몰하며 서러움에 지친 역사를 다시금 이어나가는” 동대문 주변은 청계천 주변의 즐비한 판자집이 상왕십리까지 이어지며 사창굴로 되었고,³³⁾ “서울서도 가장 큰 인육시장이 있어 취체당국의 노고를 빚어내고 있는” 종로는 “옛날의 그 느긋느긋한 풍류에 비하면 너무도 처절한” 공간으로 변하고 말았다.³⁴⁾는 것. 이로써 서울의 주요 공간은 ‘암흑’의 풍물상으로 의미화된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후의 대도시 서울은 ‘암흑’으로 점령당하고 있는 중이었다.

한편, 1956년 7월 20일부터 10월 24일 『주간 희망』까지 이어지는 『고쳐야 하겠습니다=당국의 요망』 코너는 전후 서울의 혼돈과 무질서를 ‘암흑’과의 연관성 하에서 모색하는 위의 기사들과는 차별성을 보여 준다. 이 코너는 서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설들, 즉 ‘다리 위의 점포’나 ‘도로’, ‘쓰레기’, ‘지하도’ 등의 미비 상태를 고발하고 시정(是正)할

32) 『서울 풍물지②』소공동 일대, 『주간 희망』, 1956.9.14, 30쪽.

33) 『서울 풍물지④』 동대문 주변, 『주간 희망』, 1956.9.21, 23쪽.

34) 『서울 풍물지⑤』종로의 애수, 『주간 희망』, 1956.10.5, 34쪽.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통해서 환기되는 것은 결국 전후 서울 도시 시설들의 불비와 그로 인한 ‘무질서’와 ‘혼란’의 양상이다.

주목할 점은 『희망』의 경우 당대 전후 재건 담론과 사회 정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도시 계획과 재건 관련 사회적 담론들의 수준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고 소박한 차원에서 재건 시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대 사회에서는 1953년 이미 서울시에 ‘재건국’을 신설하고 도시 계획과 부흥 사업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부 환도에 따른 서울 재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마련했으며,³⁵⁾ ‘대서울 건설5개년계획’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³⁶⁾ 서울 공간 내의 주택 건설, 판자촌 철거, 사창가 단속, 환경, 위생 등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전후 재건 노력을 추진했다.³⁷⁾ 전후 도시에 대한 전방위적인 복구와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잡지 『희망』의 「고쳐야 하겠습니다=당국에의 요망」은 상대적으로 빈약성을 노출한다. 이러한 빈약성은 [잃어버린 군생 시리즈나 [서울 풍물지 시리즈에 대한 『희망』의 관심과 비교할 때도 잘 드러난다.

이를 통해 잡지 『희망』이 보여 주고자 했던 특정한 담론의 추이를 짐작할 수 있다. 『희망』은 당대 사회에서 이루어지던 전후의 도시 재건 담론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도시 내부의 절망과 혼란의 양상을 공간적으로 특화하고 대중들에게 ‘절망’과 ‘혼돈’의 사회적 암흑면을

35) 「서울시에 재건국 신설 환도 앞두고 도시 계획 추진」, 『동아일보』, 1953.5.17, 2쪽.

36) 「대서울 건설5개년계획」, 『경향신문』, 1953.8.18, 2쪽.

37) 관련 내용으로 다음의 기사들을 참조할 수 있다. 「약진의 수도재건」, 『경향신문』, 1954.5.17; 「질서와 환경의 정리」, 『경향신문』, 1954.5.25; 「새로운 서울 도시계획」, 『경향신문』, 1955.3.11; 「국민의 실패를 알리라」, 『동아일보』, 1956.8.27; 「곧잘 되어가는 수도 재건」, 『경향신문』, 1957.12.11 등.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나갔다. 이는 절망과 혼돈을 극대화함으로써, 오히려 ‘희망’ 담론의 대중적 환기를 강조하기 위한 다소 모순적이고 양가적인 특정한 담론 구축의 양상이다.

1954년 12월호 『월간 희망』에서 이진혁은 『서울이 좋다 하기에』라는 제목 하에 환도 1년 후의 서울 풍경을 직접 체험한 서울살이 경험에 비취 다각도로 서술한다. 이 글에서 그는 서울이 연료마저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자동차가 무질서하게 질주하며 소비를 추구하는 곳이라고 말한다. 이 모든 서울의 특징은 그에게 우울함을 안겨 준다. “이같이 우울 투성이 같은 환도 후의 서울 풍경이지만 우리는 명랑 면을 찾아보는 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하면서 그가 굳이 “명랑한 대서울을 이룩하자!”는 말로 끝은 맺는 것을 볼 때,³⁸⁾ 『희망』에 재현된 전후 서울의 공간은 우울하고 어두운 풍경으로 읽힌다.³⁹⁾ 전후의 부산물로 새롭게 출현한 서울의 암흑가와 그 곳을 접거한 사회적 타자들, 그리고 이 공간이 서울의 유서 깊은 공간마저 오염시켜 나가는 가운데 서울은 1950년대 중반을 넘어설 때까지도 혼란과 무질서의 절망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 잡지 『희망』은 전후 서울을 구성하고 있는 ‘암흑가’를 적극적으로 소환함으로써

38) 이진혁, 『서울이 좋다 하기에』, 『주간 희망』, 1954.12, 24-26쪽.

39) 이와 관련하여 당대 대중문화의 대표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와의 차별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1950년대 서울의 도시 풍경을 재현했던 대표적인 영화 한형모의 〈자유부인〉(1956)과 이용민의 〈서울의 휴일〉(1956)을 살펴보면, 〈자유부인〉에서는 오선영이 근무하는 양장점이 있는 화려한 명동 거리와 그녀의 사교계 진출 무대가 되는 댄스홀 등이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재현된다. 물론, 고즈넉한 한옥 풍경을 잘 묘사한 북촌의 풍경 또한 화려한 도심의 거리와 대비되어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울의 휴일〉은 서울의 휴일 풍경을 묘사하면서 도심의 공원과 남대문의 거리뿐만 아니라, 근대식 양옥집과 산부인과 등을 살인자의 초라한 움막집과 대비적으로 재현한다. 동시대의 영화에서 재현되는 화려하고 밝은 서울의 풍경에 비취 보면, 잡지 『희망』에 재현되는 당대의 도시 풍경이 ‘암흑의 특화’라고 불릴 만큼 한편으로 경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씨, 전쟁이 양산한 부정적 결과물을 공간적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요컨대, 이 ‘암흑상’은 전후의 절망적 공간을 가시화함으로써 잡지가 추구한 ‘희망’ 담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환기하는 주요 방법론으로 특화되었던 것이다.

이와의 연장선상에서 잡지 『희망』에 게재된 환도 서울에 대한 부정적 공간 인식 경향은 오히려 서울 재건의 정당성을 환기하는 데 효과적인 일련의 언술들을 동반하고 있었다. 이 언술들은 대중들의 감정적 공통성을 상상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치안에 기반한 공간 관리와 감시의 성격을 다분히 내포했다.

3. 감정의 대중 정치와 상상되는 재건 도시

“감정은 모종의 부정형의 경험을 가리킨다.”⁴⁰⁾ 여기서 말하는 감정의 ‘무정형성’은 가시화되지 않는 형태라는 점에서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자의적인 성격을 가진다. 특히, 파괴적인 6.25 전쟁 경험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정의 파고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것은 ‘불안’이었다. “전쟁으로 인한 불안과 혼란, 공포 외에도 가뭄과 홍수(1954, 1956, 1957년), 태풍(1952, 1957, 1959) 등 전쟁 후 거의 매년 계속된 대규모 자연재해, 그리고 전염병의 만연 등은 불안 심리를 사회 전체로 확산시켰다.”⁴¹⁾ 따라서 전후 사회를 뒤덮은 이러한 ‘불안 심리’를 누그러뜨리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는 전후 불안의 요인

40) 에바 일루즈, 『감정 자본주의』, 김정아 옮김, 돌베개, 2010, 103쪽.

41)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1999, 251-252쪽.

을 탐색하고 그것을 개선하거나 해결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되었다. 그러나 ‘불안’이라는 무정형의 감정이 어떤 원인에 의해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란 실로 쉬운 게 아니었다. 분명한 건, 그것이 ‘전쟁’의 경험과 거기서 파생된 극도의 사회 혼란 속에서 형성된 감정이라는 점이었다. 따라서 불안의 효과적인 관리와 통제는 ‘전쟁’의 혼란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로 나아간다. 이러한 차원에서 잡지 『희망』은 거리를 배회하는 불량아와 도시를 점령해 나가는 악한 어둠의 씨앗들이 가져올 가공할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기사들을 게재하여 전후 암흑상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언술을 활용했다.

이러한 언술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전쟁 미망인, 사회 불량아, 양공주를 비롯한 전쟁의 부정적 사생아들이 서울의 거리와 골목을 메우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이러한 전후 도시 공간이 이들 전쟁의 사생아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범죄의 소굴이 되어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을 암암리에 환기시킨다.

영업 시간이 다했다. 오전 5시 자리를 차고 있어야 할 군상들의 영업 시간이 다했고 있는 것이다. 소매치기도 기차표 장사도 일어나고 슈샤인보이도 그리고 담배 행상도 신문 파는 애도 기침을 하여야 할 시각이다.(중략) 악의 거리의 현관-부산역에 아침햇빛이 깃들려 할 무렵이면 이들 군상들은 길손을 보내고 길손을 마중하러 피곤한 몸을 역 광장을 중심한 이 골목 저 구석 그리고 비좁은 새 틈에 나타내어 전투태세를 가춘다.⁴²⁾

민중의 평안을 방해하고 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범죄의 씨들은 이곳 저곳에 허다히 산재해 있다. 이것은 언제나 사회적이며 국가적인 커다란 문제가 되어 오거니와 오늘날에 있어서는 처참한 동란을 계기로 한 어린 사람들의 범죄 사실들까지 각종각양으로 한층 격화일로를 걷고 있어 민족 국가의 앞날에 비할 데 없

42) 임운, 『사회암흑면 중흥기』, 『월간 희망』, 1953.7, 56쪽.

는 위구감을 던져 주고 있다.⁴³⁾

남녀 간의 무책임한 관능의 열매로 전쟁에 의한 부모의 상실로 또는 피난길에서 헛갈린 채 거리에 저버려진 대로 그 짓곳은 운명의 다단한 파동에 휩쓸려 떠돌아 다니는 이 부랑아들 위하여 사회는 어떠한 보살핌을 주고 있는가.(중략) 사회의 악된 면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한편 부정된 인간고의 막다른 길에서 쓴맛 단맛 다 보고 온 어린 혼령 속에 이 흑독한 독소가 뿌리를 깊이 박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⁴⁴⁾

위에 제시된 내용은 전후에 발생한 사회 부랑아들에 대한 것이다. 환도 바람을 타고 서울로 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부산역’을 중심으로 기생하는 사회 부랑아들은 ‘소매치기’와 ‘슈샤인보이’ 등의 직업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한다. 그런데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산역은 ‘서울역’과 마찬가지로 ‘악의 현관’으로 명명된다. 이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용문의 인식에서 그 연유를 파악할 수 있다. 사회를 쪼먹는 범죄의 씨들은 사실 “동란을 계기로” 발생한 것으로서, 사회의 ‘악’을 퍼뜨릴 수 있는 위험한 존재들로 인식된다. “독소가 뿌리를 깊이 박고 있다”는 인식은 이들이 도시의 거리를 배회하면서 저지를 수 있는 ‘악행’의 잠재성을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산역’과 ‘서울역’ 일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소매치기’, ‘뽀뽀 보이’ 등으로 기생하며 건전한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존재들로 치부된다. 특히, 이들에게는 ‘전쟁의 비극과 절망’의 감정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가난’과 ‘피난’, ‘전근대성’ 같은 청산해야 할(혹은 하고 싶은) 부정적 요소까지 첨가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거주하는 서울의 특정 공간은 ‘암흑 지대’일 뿐만 아니라, 전쟁과 거기에서 연유한 온갖 부정적 요소들이 총집합된 전근대적 장소성으로 표상되기에 이른다. ‘전쟁’과 ‘어둠’의 이미지로 상호 결합된 서울의 공간

43) S 기자, 『서울 소년원을 찾아』, 『주간 희망』, 1954.11, 216쪽.

44) 『잃어 버린 군상④』 꿈 없는 비극의 씨들, 『주간 희망』, 1957.7.13, 15쪽.

들은 따라서, 단순히 ‘암흑기’로 제시된다기보다는 대중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혹은 ‘전쟁’이 야기한 부정적 세계를 표상하는 거울로 인식되는 것이다. 돌아보고 싶지 않은 전쟁과 과거의 온갖 추한 요소들이 타자화된 존재들과 그들이 기생하는 공간에 녹아 있다. ‘전쟁’이 야기한 사회 불안 심리는 바로 이러한 타자화된 공간과 인물에 초점화되어 불안을 증폭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치안 담론’이다. 서울 곳곳을 잠식해 들어가는 ‘악’의 씨앗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소환된 대중들의 ‘불안’과 ‘범죄’에 대한 공통 감각들은 손쉽게 ‘치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데로 나아가는 계기를 제공한다. 물론, ‘치안’ 담론은 전후 재건 담론에서 항상 거론되던 것이었다. “근자의 서울의 치안상태는 점차로 선량한 시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당국에서는 소위 날치기, 소매치기 용의자를 약 오백명으로 추정하고 카이드와 지문을 정비한다고 들었으며 칠백명의 부랑아를 재수용한다”는 방침을 전했다는 기사들을 통해,⁴⁵⁾ ‘치안’의 사회적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잡지 『희망』의 경우, 이러한 ‘치안’ 담론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악의 부정적 요소들을 특정 공간 층위에서 배제·소외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희망’ 담론의 자장으로 끌어들이으로써 배제와 포섭의 대중 선동적 언술을 활용했다. 위의 두 번째 인용문에 언급되어 있는 ‘서울 소년원은 사회의 부랑아들을 위한 집단 수용소로서 세워진 곳이다. ‘수용 시설의 열악함과 수감생들의 굶주림에 의한 탈출⁴⁶⁾과 같은 당대의 현실적 문제와는

45) 『거리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 『경향신문』, 1955.1.18, 1쪽.

46) 박홍근, 『사회적 배제의 형성과 변화-냉마주이 국가동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108권, 한국사회사학회, 2015, 236쪽.

별개로, S 기자는 “그것은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운 때도 있으리라! 어쨌든 이와 같은 일과로서 그날그날을 보내는 그들은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우울한 표정들이 자취를 감추고 그를 대신하여 희망에 가득한 운기가 돌게 되는 것이다.”⁴⁷⁾라고 언급한다. 기자의 말에 따르면, 사회의 암적 존재들을 관리·감시하는 통제 시스템의 구현은 ‘희망’의 담론과 연계된다. 현실의 실질적 문제가 삭제된 자리에 들어선 관리 시스템의 구현은 ‘범죄’와 ‘사회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환기 속에서 ‘희망’의 감정을 불러 넣는 방법론으로서 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둘째, ‘고백’ 혹은 ‘증언’의 서사 전략을 활용하여 ‘사회악’의 출현과 부조리를 대중에게 고발함으로써, 서울을 점령하고 있는 범죄 집단과 그들의 공동체를 위협으로부터 구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구축한다.

이력저력 저녁이 되어 인제 동서도 퇴근해서 기다리겠거니 하고 단성사 골목을 빠져 나오려 하는데, 이골목 저골목에서 생면인 여인들이 단자곤자로 ‘놀다 가세요 이쁜 색씨가 기다려요’ 하면서, 일대 포위작전을 해온다. ‘이크! 큰일났군.. 왜 이다지 서울이란 수난이 많은 데냐? 그전에 내가 서울 살 땐 그렇지 않았는데... 나는 진퇴양난의 유곡(幽谷)에 빠진 한마디 노루새끼가 되어 마구 끌려 가려는 참이다. 그렇지만 안 된다. 나는 교육자다.(중략) 그것도 자랑스러운 서울의 심장부인, 종삼, 봉익동 일대다. 이러구서도 서울이 한국의 수도요, 아방 유일의 문화도시란 말인가? 독버섯처럼 길모양만 번지르한 달팽이 군상들이 서식하고 매소 임질병을 선물하는 서울이 시골뜨기들의 동경을 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⁴⁸⁾

기자: 언제부터 이런 고생 하세요?

현: 육이오 땀니다. 용산에 있던 집이 폭격으로 다 부서지고 마니 갈 곳이 없어 야쥬. 게다가 아무 일거리도 없이 부산으루 대구루 떠돌아 다니다 보니 결국 요 모양이 된 거쥬.

(중략)

47) S 기자, 『서울 소년원을 찾아』, 『월간 희망』, 1954.11, 220쪽.

48) 박일송, 『서울에의 향의 서울역, 백화점, 그리고 백오십만 서울 시민에게 항고한다』, 『주간 희망』, 1957.4.19, 49쪽.

기자: 부인하군 언제 결혼했습니까?

현: 만주 있을 땐니다. 그땐 이런 미래가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죠. 철광으루 철도 공사장으루 십장노릇 하면서 지냈으니까 돈푼도 만져 보구... 꽤 잘살았죠.

회고하는 이 이지러진 주민의 입에선 깊은 한숨이 흘러 나왔다. 한국인이면서도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는 이 버림받은 군상은 현재 사회의 각계각층에 그 서글픈 자욱을 남긴 채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하고 명일의 유랑만을 피하고 있다.⁴⁹⁾

위의 첫 번째 인용문은 시골 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일송이 일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 겪은 경험을 기록한 내용이다.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전쟁 전’, 그러니까 그가 예전에 서울에 살 때는 없었던 것들이 전후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표적 사창지대인 ‘종삼’의 형성이다. 그는 자신을 ‘노루새끼’로 비유하는데, 이는 종삼의 매음녀들을 순수한 노루를 노획하는 야만적인 포식자로 대상화하는 전략이다. ‘수난’과 ‘포위’ 등의 수식으로 표현되는 종삼 지대의 경험은 이 공간을 순수한 일반 사람들에게 ‘위험한 장소’로 환기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듯 잡지 『희망』에서 지속적으로 재현되는 서울의 사창지대는 ‘범죄’와 ‘악’, ‘위험’의 장소로서 대중에게 인식된다. 순수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순수성을 훼손할 것만 같은 막연한 두려움과 위험성이 박일송이 체험한 ‘종삼’ 지대뿐만 아니라 서울 도시 내부의 ‘사창지대’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하고 악한 서울 도시의 공간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문화 도시’로서의 서울이다. 박일송은 ‘문화 도시’로서의 품격에 ‘종삼’ 지대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을 맺는다. ‘문화 도시’라는 말은 ‘사창지대’를 비판하는 다른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수도 관문의 지척에 한결음만 들어서도 악취와 온갖 패륜이 득실거

49) 『잃어 버린 군상①』, 『백주의 암흑지옥은 지상에서-다리밑의 주민들』, 1956.6.22, 40쪽.

리는 창굴이 있고서야 어떻게 문화 도시라느니 문명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⁵⁰⁾라는 진술에서도 전후 재건 도시는 ‘문화’와 ‘문명’으로 상징될 필요성이 엿보인다. 그런데 기사들에서 ‘문화’와 ‘문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이 개념들은 전후 서울의 공간을 ‘범죄’와 ‘악’으로부터 구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제출된 당위론적 명제일 뿐이다. 다만, ‘문화’와 ‘문명’은 그 개념적 모호성과 추상성으로 인해 전후 불안과 절망에 휩싸인 대중의 감정을 포섭하고 공통의 정서를 형성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었다. 서울로 밀려들어온 수많은 피난민들과 환도 시민들에게 전후 어둠의 공간이 탄생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기에 적절한 개념이었던 것이다.⁵¹⁾

두 번째 인용문은 전형적인 ‘피난민’의 서사를 보여 주는 내용이다. 고백 내용으로 봐서, 지계꾼인 ‘현’은 일제 강점기 ‘만주’로 이주한 디아스포라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해방 후 월남한 이 사람이 용산에 어렵게 집을 구해 살다가 6.25 전쟁의 폭격으로 모든 걸 잃은 채 거리의 난민이 되어 버린 것이다. ‘현’의 고백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다. 기자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현’과 같은 존재들이 현재 사회의 각

50) 『하숙이라는 이름의 사창굴』, 『주간 희망』, 1957.9.6, 19쪽.

51) 잡지 『희망』에 게재된 이러한 일련의 ‘증언’과 ‘고백’의 서사가 당대 대중들의 감정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잡지에 게재된 ‘편집자’의 말이나 ‘독자의 편지’ 등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서사가 일으킨 대중 문화 정치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위와 같은 증언의 서사가 당대 사회 정화 운동의 맥락에서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치안’ 담론과 대중의 감정 정치가 ‘증언’과 맺는 관련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1957년 경향신문 기사는 ‘중삼이란 곳을 조명하는 가운데, “사회의 악”의 온상지로 알려지고 있는 이 지역은 그간 경찰의 심한 단속도 있었으나 세균처럼 “악의 꽃”은 번성만 한다. 우리들의 자녀교육의 환경을 정화시키고 그들 창녀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경찰은 철저한 단속을 할 수 없을는지”라고 끝을 맺는다. (『중삼이란 곳』, 『경향신문』, 1957.8.4)

계각층에 서글픈 자국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현’을 전쟁 난민으로 부를 수 있다면, 전후에 거처를 잃고 거리를 방황하는 전쟁 미망인과 양공주, 부랑아들 모두가 이에 해당된다. 이 짧은 난민 서사의 고백은 이중적인 작용을 한다. 우선, ‘현’ 자신에게 전쟁 경험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나아가서는 대중들로 하여금 ‘전쟁 난민’에 대한 연민과 거리 유지의 상반된 감정을 공유하도록 이끈다. ‘전쟁’이라는 공통된 경험에 대한 대중적 감정이입은 ‘연민’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거리를 방황하는 빈민으로서의 ‘현’의 현재는 ‘난민 서사’로부터 일반 대중들의 감정적 분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한국인이면서도 국민의 권리를 갖지 못했다’는 기자의 추가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현’은 국민의 권리를 갖지 못한 존재로서 사회적 타자이다. 이는 단순히 제도적 권리의 차원에서 언급된 것이라기보다는 서울의 암흑 지대에 거주하는 ‘현’을 포함한 이들의 비참한 생활상에서 기인한다. 거처할 마땅한 집도 없이, 전쟁이 가져온 절망과 고통을 온 몸으로 겪어내야 하는 서울의 암흑면에 기생해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암흑면’을 탈출하고, 전쟁이 가져온 비참의 국면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한 ‘한국민’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의 고백은 ‘전쟁’을 경험한 대중의 공통 감정을 건드리면서도, 실제로는 전후 대중들이 욕망했던 공통의 감각으로부터 밀려난다. ‘현’이 사회적 타자들을 상징할 때, 이들을 외부로 밀어내는 치안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 하에서다.

앞서 논의했던 ‘소년원’으로부터 시작하여 경찰의 단속과 집단 수용의 문제가 자주 언급되는 것도 ‘치안 담론’의 범주 안에 있다. “현재 창녀들을 보도할 목적으로 세워진 보도소는 서울시내 오류동에 겨우 5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긴 하나 이것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부인회와 중앙복음선도협회의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⁵²⁾이라든가 ‘서울 댄스홀에 대한 여자 경찰관 들의 취체⁵³⁾’를 다룬 기사들의 내용을 보건대, 치안을 통한 전후 서울 곳곳의 암흑 지대를 취체하고 관리하는 것은 대중들의 재건 도시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렇듯 잡지에 게재된 ‘고백’과 ‘증언’의 서사들은 전후 재건 도시 서울 내부에 암처럼 번져 가고 있는 어둠의 지대들과 그 안의 사회적 타자들을 감정의 차원에서 분리하고, ‘문화’와 ‘문명’의 이름으로 재건 도시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사실, 다수의 기사들이 잡다하게 서울의 암흑 지대를 조명하고 비판했지만, 재건 도시에 대한 잡지 『희망』의 상상력은 매우 빈약한 편이었다.

4. ‘모던 도시’, 전후 ‘희망’ 담론의 공간적 선회

전후의 ‘암흑상’이 잡지 『희망』의 ‘희망’ 담론 구축을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되었다면, 이 암흑상을 극복하기 위한 ‘희망’ 담론의 구체적 내용 또한 수반되어야 했다. 그런데 잡지에 제시되어 있는 ‘희망’ 담론은 ‘암흑상’에 대한 다양한 기사와 내용에 비하자면 빈약한 편에 속했으며, 게재된 내용 또한 선진 문명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초점화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1957년 10월 4일자 『주간 희망』에서는 [특집]으로 「20년 후의 새 서울」을 상상해 보는 코너를 마련한다. 기사의 첫 장을 보면, 부제로 ‘港口를

52) 「길 잃은 아름다운 악녀들=아가의 회원은 과연 없어질 건가?」, 『주간 희망』, 1958.7.4, 56쪽.

53) S 기자, 「뒷골목 댄스홀의 생리」, 『주간 희망』, 1955.4.

낀 大 『모던』都市라고 제시되고 그 아래 사진이 한 장 첨부되어 있다. 〈도로공사로부터 시작되는 새 서울의 설계·종로5가에서〉라는 제목으로 제시된 사진에는 초라한 건물들과 잡다한 거리의 부산물들 사이로 시설물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사진만 보면 잡지가 부제로 내건 ‘대 모던 도시’와 현재의 서울에는 큰 괴리가 느껴질 정도다. 그러나 기사 내용에서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20년 후 새 서울의 모습은 대중들로 하여금 현실의 비참을 잊고 희망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서울시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도 혼합지역, 녹지지역의 2개 지역을 지정하여 선진 현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 특히 도심 지대에는 공공건물 지구를 두어 관공서의 집산을 이루게 하여 서울 시민에게 절대적인 편리와 최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가난과 시간에 쪼들리는 오늘의 서울 시민들에게겐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 아니겠습니까?(중략) 도심 지대에 있어서는 종로, 남대문로, 을지로를 중심으로 한 일대와 교통의 중심지와 각 역 부근엔 백화점과 각종 상점이 즐비하니 늘어선 상업지역이 마련되고(중략) 이와 같은 구획과 규모가 짜인 새 서울의 정연한 모습과 현대적 도시의 장관을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⁵⁴⁾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20년 후 서울의 모습은 가난과 시간에 쪼들리는 오늘의 서울 시민들에게 반가운 미래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전후 서울의 대표적 암흑가로 꾸준히 제기되었던 ‘종로, 남대문로, 을지로, 역(驛)’들이 ‘백화점’과 ‘상점’이 들어선 상업지구로 개발되는 미래의 서울은 ‘현대적 도시의 장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희망』 잡지는 전후 도시의 암흑과 절망을 삭제하고 새로운 도시적 상상력을 제공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미래적 희망의 ‘상상력’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희망’ 담론의 공간적 상상력은 이미 1954년 12월 『월간 희망』

54) 『특집 20년 후의 새서울=항구를 낀 대 모던 도시』, 『주간 희망』, 1957.10.4, 4쪽.

에서도 그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우울 투성이의 전후 서울의 현실에만 함몰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명랑’의 면모를 찾아보라고 말하면서 그가 제시하는 것들은 “덕수궁에서 열린 국산품 박람회”, “미도파 5층에서 개막된 중고등학교 미술 전람회에 출품된 우수한 작품들”, “버스 안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의 교양” 등이다.⁵⁵⁾ 그가 말하는 ‘명랑’ 서울의 조건은 전후 현실의 비참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것’의 출현이다. 말하자면, ‘명랑’ 서울은 어떤 ‘모던’한 것들의 출현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실, ‘모던’은 도시적 삶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서 잠시 전쟁이 야기한 삶의 비참과 절망을 망각하고 카타르시스를 얻기 위해 도시 서민들이 향유했던 영화 관람과 라디오 시청 등의 여가 역시 도시적 문화 풍경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⁵⁶⁾ ‘도시’는 최첨단 ‘모던’의 가장 훌륭한 용광로가 되어, 전쟁의 참화가 가져온 대중의 부정적인 세계 인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잠재우는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희망』 잡지에 게재되어 있는 ‘모던’ 서울에 대한 공간적 상상력은 이러한 사회 문화적 맥락과 연관된다. 요컨대, 잡지에 게재된 ‘모던’으로 표상되는 ‘서울’은 전후 ‘재건’의 목표이자 대중들의 심리적 아픔을 위로하는 ‘희망’의 담론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잡지에서 전쟁의 ‘얼굴’이자 도시의 ‘암흑’ 지대와는 차별화

55) 이진혁, 『서울이 좋다 하기에』, 『주간 희망』, 1954.12, 26쪽.

56)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1999, 272-273쪽. 관련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슬픈 애정 영화, 서부활극, 코미디 영화에 빠져들었던 것은 그것이 전쟁과 가난에 지친 이들에게 망각과 위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타르시스의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애정소설과 애정관계를 다룬 연속방송극의 인기, ‘말의 유희, 신변잡기 류의 일상사, 개인의 바보화’를 소재로 한 라디오 코미디의 인기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1950년대 후반 도시 서민들의 숨김 없는 문화적 풍경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심리적 이완을 허용하는 여가의 기회도 대체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되어 있는 지향해야 할 ‘모던 도시’ 서울의 표상은 어떠했는가. 1956년 8월 24일부터 9월 21일까지 약 한 달간 게재된 『내가 본 한국』 코너는 서울에 몇 달 간 체류한 조오지 M. 데이리의 ‘인상기’이다. 그는 한국에 도착하여 ‘반도 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는데, “하와이 도서관에서 본 사진(좁 오래된 것임)과 비교할 때 놀랄만한 재건이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놀랐다.”고 인상을 피력한다. 또한 그는 숙소로 지정한 ‘반도 호텔’을 “참으로 훌륭한 건물임에 놀랐다.”고 높게 평가한다.⁵⁷⁾ 이후 그는 두 번째 ‘인상기’에서 “파리나 로마를 여행 하면 맛볼 수 있는 방랑한 분위기를 이곳 한국에 와서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외국 정취를 풍기는 이름을 가진 각종 다방, 스탠드빠, 요리점이 즐비한 명동의 거리는 특히 나의 인상을 깊게 하였다”고 쓴다.⁵⁸⁾ 그의 인상기에 등장하는 ‘반도 호텔’과 ‘명동’은 전후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국내적인 공간’에서 ‘국제적인 공간’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주요한 장소이다. 데이리는 이러한 장소적 확장성을 언술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1955년 8월 『월간 희망』에서 ‘반도 호텔’을 다룬 문제안의 글을 보면 그는 이 호텔을 “최근 국제 도시의 축도”⁵⁹⁾로 명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국내 필자의 인식은 ‘반도 호텔’을 인식하는 데이리의 시각을 통해 입증된다. ‘국제 도시’에 대한 감각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명동’을 ‘국제적인 정취를 지닌 ‘모던’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데이리의 시각은 ‘모던’ 도시에 대한 공간적 상상력을 동원했던 『희망』 잡지의 의도에 효과적으로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데이리의 ‘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인해 그의 인상기에 드

57) 조오지 M. 데이리, 『내가 본 한국①』, 『주간 희망』, 1956.8.24, 26쪽.

58) 조오지 M. 데이리, 『내가 본 한국②』, 『주간 희망』, 1956.8.31, 15쪽.

59) 문제안, 『시원하고 아낀 것 없는 요지경-최근 국제도시의 축도 반도 호텔』, 『월간 희망』, 1955.8, 178쪽.

러나는 전후 ‘모던’ 도시에 대한 언술은 한계를 보여 줄 수밖에 없었다. “외국인의 정체성은 국가에의 소속과 참여의 결핍에서 산출된”⁶⁰⁾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리는 서울의 특정 공간, 즉 ‘반도 호텔’이나 ‘명동’, 혹은 ‘스탠드 뺨’ 등의 선진 문물을 경험하는 장소에만 머물러 있어 전후 대한민국과 전쟁이 초래한 현실에 대한 포괄적인 시선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반쪽짜리 데이리의 인상기가 문제안의 ‘반도 호텔’에 대한 시선과 겹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잡지 『희망』에 드러나는 ‘모던 도시’에 대한 상상력의 빈약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희망’ 담론의 공간적 선회로 제기된 ‘모던 도시’에 대한 상상력은 전후 도시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을 도외시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모던’의 미래적 도시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당위적 담론이 잡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지만, 이러한 담론의 구성이 때로 ‘외국인’의 시선으로 전유되고 있거나 그 시선에 부응하는 특정한 공간을 다루는 것에 국한되어 있어 상상력의 현실적 조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물론, 전후 현실의 비참과 절망을 잊기 위기 위한 방편으로 소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모던 도시’에 대한 상상력이 ‘희망’의 담론과 조응하여 현실적 의미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후 ‘암흑의 도시 공간’에 대한 국가적 요청과 시정의 필요성을 확립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고쳐야 하겠습니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전후 도시 공간에 대한 국가적 요청 수준은 매우 낮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암흑가를 조명하는 글의 말미에서 어김 없이 등장하는 비판적 논평들이 대부분 “바로 수도 관문의 지척에 한걸음만 들어서도 악취와 온갖 패륜이 득실거리는 창굴이 있고서야 어떻게 문화도시라느니 문명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

60) 기욤 르 블랑, 『안과 밖』, 박영옥 옮김, 글항아리, 2014, 47쪽.

가”⁶¹⁾ 혹은 “현대의 마굴 사창가는 과연 당국의 계획대로 없어질 것인가?”⁶²⁾처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의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비탄’이나 ‘자조’, ‘의문’ 등으로 본질을 회피하는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희망』 잡지의 현실 인식이 매우 일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의 암흑가와 그곳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타자화된 존재들이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에 비해, 이러한 단순하고 낮은 차원에서의 국가에의 요청은 잡지 『희망』이 보여 준 전후 현실에 대한 보수적 계몽 의식 및 인식의 한계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한계는 근본적으로 ‘희망’ 담론의 추상성과 모호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갈피를 뒤지어 분간하기 어렵고 실마리를 찾아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는 착종하고 다난한 현실에 대처하여 우리들의 호흡이 밖으로 세계와 더불어 공통하며 안으로 사회와 함께 냉온을 맞볼 수 있는 길은 오직 이목이 부딪치는 곳, 흐리지 않고 어지럽지도 않으며 바르고 빠르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만 간절히 요청되는 것”⁶³⁾이라는 잡지 편집진의 전후 인식은 자연스럽게 ‘희망’ 담론으로 응축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희망’ 담론의 구축을 위해 소환한 사회의 암흑상과 혼란상은 타자화된 사회적 존재들을 배제·소외시킴으로써 대중 선동의 감정적 나눔과 분리를 자초했으며, 이는 공간적으로 구획된 사회악의 대표적 타자들을 보수적·윤리적으로 계몽하는 차원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상실한 채 치우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희망’ 담론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목적성이 상실된 가운데 잡다한 기사와 필자들의 복잡함, 편집진들의 교체 등이 맞물리다 보니, 1950년대 전후 현실에서 강

61) 「하숙이라는 이름의 사창지대」, 『주간희망』, 1957.9.6, 19쪽.

62) 「길 잃은 아름다운 약녀들」, 『주간 희망』, 1958.7.4, 57쪽.

63) 「첫 호를 내면서」, 『주간 희망』, 1955.12.26, 3쪽.

력한 호소력을 보여 줄 수 있었던 ‘희망’ 담론의 구축은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5. 나가며

이 글에서는 잡지 『희망』에 게재된 ‘전후 도시’ 관련 기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공간’에 기반한 대중 문화 정치에 대해 탐구하고자 했다. 전후 환도 도시로서의 ‘서울’은 ‘재건’의 공간적 장소로서 한국 전쟁 후 대중들의 현실 인식과 문화를 담는 중요한 용광로로 작용했다. 잡지 『희망』은 환도 도시 ‘서울’에 대한 각종 기사들을 게재함으로써 전후 재건 담론과의 연장선상에서 특정한 공간의 조직과 구조화에 대한 단상들을 제공했다. 잡지에 게재된 다양한 전후 도시 내부의 암흑 공간과 관련된 기사들은 사실 ‘희망’ 담론의 구축을 위해 소환된 것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후의 참상과 온갖 절망적 문제들을 담고 있는 도시 내부의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희망 담론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대중들에게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잡지 『희망』은 전후 서울의 특정한 공간들을 ‘암흑’과 ‘어둠’의 장소로 규정하고, 이 장소들에 전후 청산해야 할 온갖 전쟁의 부산물과 전근대성 등을 연결시킴으로써 재건을 위해 삭제해야 할 타자적 존재들을 조합시키는 일련의 언술들을 구사했다. 잡지에 게재된 서울역이나 남대문, 동대문, 남산, 종삼 등의 장소들은 ‘매춘’과 ‘부랑’ 혹은 ‘항략’과 ‘사치’, ‘가난’과 ‘전근대성’ 등의 다양한 수시들과 직결되어 제시된다. 이러한 암흑의 공간에 거주하는 매춘녀나 부랑아 및 가난한 빈민층들은 모두 전후 재건 도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로 치부

되었다. 또한 도시 내부에 존재하는 암흑의 공간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 공간이 내포하는 어둠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했다. 전후의 온갖 부조리와 타락 속에서 대중들이 경험한 사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부정적 감정들을 도시 내부에 존재하는 이 공간에 투영함으로써, 도시의 ‘암흑상’은 대중들로 하여금 외면하거나 척결해야 하는 공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대중의 감정 정치를 작동하는 데 있어, 잡지에 게재된 도시 내부 암흑 공간에 대한 ‘치안 담론’은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이를 통해 치안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희망’ 담론의 구축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었다.

한편으로, 잡지 『희망』에서는 전후 재건 도시에 대한 상상력 속에서 ‘모던 도시’에 대한 지속적인 환기를 시도했다. 이러한 언술들은 ‘희망’ 담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전후 대중들의 비참한 현실 인식을 심리적으로 완화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 상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그러나 모던 도시에 대한 상상력은 비참한 현실에 대한 직시와 총체적 인식 수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시선으로 포착된 것이거나 근대화된 특정 장소에만 국한되어 있어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었다. 서울의 암흑 공간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또한 매우 일차원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다가, 문제에 대한 국가에의 요청 또한 매우 지엽적인 부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잡지 『희망』의 ‘희망’ 담론과 재건 도시에 대한 상상력의 빈약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잡지 『희망』은 1950년대 매체 지형의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희망’ 담론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기사들을 게재함으로써, 잡지 고유의 특성을 지속해 나아가고자 노력했다. 본 고가 초점을 맞춘 ‘전후 재건 도시’에 대한 상상력 또한 이러한 잡지의 특성을 추출해 내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잡지 『희망』에는 전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재건 도시에 대한 상상력을 ‘희망’ 담론과 연결시키고자 한 일련의 노력들이 보인다. 전후의 절망 상태에 빠진 폐허의 도시 속에서, 대중들에게 만연한 전후 현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 담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폐허가 된 전후의 도시에 자리잡은 전쟁의 상흔, 즉 부정적인 전후의 부산물을 직시하고 척결하는 것이 선결 과제였다. 잡지 『희망』의 도시 내부 암흑상에 대한 관심은 여기에서 연유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부정적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희망’ 담론의 구체적인 내용이 충실하게 형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희망’ 담론의 방향성과 목표가 불분명했던 것은 그 근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던 전후 재건 담론과 사회 정화 계획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 잡지 『희망』은 사회악과 전후 암흑상을 공간적 층위에서 특화하고, 전후의 부산물이자 전근대적 요소들로 치부되는 사회적 타자들을 적극적으로 소환하여 배제·소외시킴으로써, 이들에 대한 계몽적이고 윤리적인 교화와 대중의 감정적 분리를 시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1950년대 전후 현실에서 강력하게 요청되었던 재건 담론을 잡지가 소화하는 데 있어 한계점으로 작용했으며, 전후 현실에서 요청되었던 희망 담론을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자장 안에 가두는 문제를 노정했다. 그러나 잡지 『희망』에서 전후 재건 담론을 ‘공간’의 문화 정치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점은 1950년대 대중 문화 지형에서 전후 도시 공간이 지닌 정치적 관심과 의미를 살펴보는 데 있어 좋은 참조점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월간 희망』, 1953.7-1962.8.
『주간 희망』, 1955.12-1958.9.

2. 논문과 단행본

-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1999, 197-299쪽.
- 공임순, 『1950년대 전후 레짐(postwar regime)과 잡지 ‘희망’의 위상』, 『대중서사학회 2017년 봄 학술대회 자료집』, 대중서사학회, 2017.5.27, 1-19쪽.
- 기욤 르 블랑, 『안과 밖』, 박영옥 옮김, 글항아리, 2014.
- 나리타 류이치, 『근대 도시 공간의 문화 경험』, 서민교 옮김, 뿌리와 이파리, 2011.
- 미셸 푸코, 『비정상인들』, 박정자 옮김, 동문선, 2001.
- _____,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 심세광 외 옮김, 난장, 2011.
- 박홍근, 『사회적 배제의 형성과 변화-영마주이 국가동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108권, 한국사회사학회, 2015, 227-261쪽.
-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양영란 옮김, 에코리브르, 2014.
- 엄동섭, 『1950년대 희망사 간행 대중잡지의 서지 연구』, 『근대서지』 13호, 근대서지학회, 2016, 158-189쪽.
- 에바 일루즈, 『감정 자본주의』, 김정아 옮김, 돌베개, 2010.
- 이봉범, 『한국전쟁 후 풍속과 자유민주주의의 동태』, 『한국어문학연구』 제56집, 동아어문학회, 2011, 335-387쪽.
- 이성철, 『안토니와 그람시와 문화정치 지형학』, 호밀밭, 2009.
- 이은선, 『전쟁기 『희망』과 조흔파의 ‘명랑소설’ 연구』, 『어문논총』 66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295-321쪽.
-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옮김, 길, 2016.
- 장세훈, 『한국전쟁과 남북한의 도시화』, 『사회와역사』 67권, 한국사회사학회, 2005, 207-260쪽.
- 전지니, 『『희망』 소재 문예면에 나타난 전쟁기의 윤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7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103-130쪽.
- _____, 『1950년대 초반 종합지 『희망』의 반공청년 표상』, 『어문논총』 6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369-400쪽.

- 정성호, 『한국 전쟁과 인구사회학적 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백산서당, 1999, 11-54쪽.
- 조르조 아감벤, 『도래하는 공동체』, 이경진 옮김, 꾸리에, 2014.
- 조유아, 『인권교육의 텍스트 확장을 위한 연구-1950년대 대중잡지 『희망』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47권, 2015, 115-136쪽.
- 최애순, 『50년대 『아리랑』 잡지의 ‘명랑’과 ‘탐정’ 코드』, 『현대소설연구』 제4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351-390쪽.

3. 신문 기사

- 『거리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 『경향신문』, 1955.1.18, 1쪽.
- 『국민의 실태를 알리라』, 『동아일보』, 1956.8.27, 2쪽.
- 『곧잘 되어 가는 수도 재건』, 『경향신문』, 1957.12.11, 3쪽.
- 『대서울 건설5개년계획』, 『경향신문』, 1953.8.18, 2쪽.
- 『무방비지대(5)사창』, 『동아일보』, 1955.11.29, 3쪽.
- 『무방비지대(7)부랑배』, 『동아일보』, 1955.12.1, 3쪽.
- 『불건전한 도시 생활환경』, 『동아일보』, 1958.6.26, 1쪽.
- 『불량 청소년과 범죄』, 『경향신문』, 1958.11.22, 4쪽.
- 『[사설]사창단속문제』, 『동아일보』, 1958.6.19, 1쪽.
- 『사창들의 그 후 생태』, 『경향신문』, 1956.1.9, 3쪽.
- 『서울시에 재건국 신설 환도 앞두고 도시 계획 추진』, 『동아일보』, 1953.5.17, 2쪽.
- 『새로운 서울 도시계획』, 『경향신문』, 1955.3.11, 4쪽.
- 『약진의 수도재건』, 『경향신문』, 1954.5.17, 2쪽.
- 『중삼이란 곳』, 『경향신문』, 1957.8.4, 2쪽.
- 『질서와 환경의 정리』, 『경향신문』, 1954.5.25, 1쪽.
- 지윤희, 『윤락여성에 선도가 선결 국민반단위로 조직적인 단속에』, 『경향신문』, 1955.12.13, 2쪽.

Abstract

A Post-war Reconstructed City Imagined in the Magazine *Huimang(Hope)*

Han, Young-Hyeon(Semyung University)

This research aimed to explore popular culture and policy based on "space," and centered on articles on a "post-war city" that were published in the magazine *Huimang(Hope)*. Articles in the magazine that related to various dark spaces inside post-war cities were recalled to establish a discourse on "hope."

The magazine *Huimang(Hope)* defined specific spaces in post-war Seoul as places of "darkness" and "blackness," and connected them with various by-products of wars and pre-modernism to produce a series of discourses that combined other beings that should be removed for reconstruction. The magazine also took advantage of the image of the darkness of a space when describing the dark space inside cities. By reflecting society's negative emotions of "anxiety" and "fear" that had been experienced in post-war irrationality and decadence on the space existing inside cities, the "dark phase" of the cities can be interpreted as a space that should be neglected or eradicated by the public. When it comes to running the emotional policy of the public, a "discourse on security" for dark spaces inside cities, which was published in the magazine, worked effectively. Through this, the legitimacy and necessity of security were 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a discourse on "hope." Meanwhile, the magazine *Huimang(Hope)* tried to evoke a "modern city" in the imagination about a post-war reconstructed city. Such discourses worked as a mechanism that relieved the people's post-war awareness of a miserable reality in the continuity with a discourse on "hope" and encouraged them to have a hopeful imagination about the future.

The magazine *Huimang(Hope)* tried to maintain its unique characteristics by sharing the geographic features of the media in the 1950s, as well as publishing various articles to establish discourses on "hope." The continuous efforts of the magazine to face the scars of wars through imagining a post-war reconstructed city and to develop a discourse on hope through practical sites where people lived, such

as spaces, can be seen as characteristics that contributed to its significance as a public magazine.

(Key Words: the magazine *Huimang(Hope)*, post-war city, dark phase, space, discourse on security, discourse on hope, modern city, popular culture and policy, socialother, pre-modernism, post-war irrationality)

논문투고일 : 2017년 7월 7일

심사완료일 : 2017년 8월 10일

수정완료일 : 2017년 8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7년 8월 14일